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 든다. 9월 채택된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은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 난 상태다. 애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원유 공급의 상한선으로는 '연간 400만 배럴'을 명시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연간 400만 배럴이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행 대북 공급량을 동결하되, 구체적으로 수치를 명시한 셈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트리거' 조항에 해당한다.

'달리벌이'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추가 도발은 그 이상의 추가적인 제재와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낸다."면서 "또다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다면 결의에 따라 안보리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움직임도 계속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20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미 재무부는 이튿날인 21일 대북 불법자금 유입을 이유로 중국 인과 중국기업,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발표했다.

지구촌 곳곳 피로 물들인 테러... 일상화된 공포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테러는 지구촌 곳곳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따른 테러뿐 아니라 반사회적 성향의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들, 즉 '소프트 타겟'을 겨냥해 무자비한 해를 가하는 충격적 사건들이 2017년에도 끊이지 않았다.

우선 영국에서는 5월 22일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 도중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 22명이 숨지고 60명 가까이 부상했다. 이 테러는 2005년 52명이 목숨을 잃은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영



▲ 5월 23일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 자살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렸다.

국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테러로 기록됐다. 또 2015년 11월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테러를 연상시켜 시민들을 더욱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여름철 바캉스 시즌이었던 8월 17일에는 세계적인 관광지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전 세계 관광객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바르셀로나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중심가인 람블라스 거리에 밴 차량이 돌진해 1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는 이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행인들을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는 핼러윈데이였던 10월 31일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도 일어났다. 소형 픽업트럭이 자전거도로를 덮쳐 최소 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특히 테러가 발생한 장소는 16년 전 9·11 테러가 발생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지역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었다. 핼러윈데이를 맞아 시민 수천 명이 참가하는 퍼레이드도 예정돼 있던 터라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11월 24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는 이집트 현대사에서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사건이 발생했다. 시나이반도 북부 알라우다 모스크에서 금요기도회가 열리던 중 IS 깃발을 든 무장조직원들이 들이닥쳐 신자 500여 명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터트리고 총격을 가했다. 이 테러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최소 305명이 숨지고 128명이 다쳤다.

특히 이 테러는 IS가 같은 무슬림을 겨냥해 벌인 테러라는 점에서도 충격을 줬다. 테러가 발생한 사원은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Sufism)'가 주로 찾는 모스크로, 수피파는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조직과 보수 수니파로부터 이단으로 배척을 받아왔다. IS가 미국 등이 주도하는 대테러작전에 밀려 중동에서 점점 거점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발생한 테러였다는 점에서 IS가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됐다.

미국에서는 끔찍한 총기난사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10월 1일 미 서부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범이 아외 콘서트장에 모인 관람객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60명 가까이 사망하고 527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2016년 6월 49명이 숨진 플로리다 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보다 더 끔찍한 최악의 참극이었다. 총기 난사범은 네바다 거주민인 스티븐 패덕(64)으로 확인됐다.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경찰은 패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면서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개 관

2017년 세계 경제는 상반기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반기엔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 성장하면서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모두 양호한 성적표를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2분기부터 소비 부진에서 벗어나고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등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를 띠면

서 2016년보다 성장률이 올라갔다. 유로지역 경제는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내수 호조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16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 경제도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6년 대비 고성장을 나타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 경제가 대외수요 회복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뤘고, 인도 경제도 신규 상품·서비스세제(GST)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갔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아세안 5개국 경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모든 국가가 고르게 성장하며 2016년 대비 성장률이 올랐다.

고용여건은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신흥국도 중국, 러시아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여건이 대체로 개선됐다.

물가는 주요 선진국이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6년 대비 상승했다. 신흥국 중에서 중국은 식료품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상승폭이 둔화했으며, 브라질 및 러시아는 농산물 가격 하락, 통화 가치 절상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금융시장은 시리아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브렉시트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세계 경제의 개선 흐름에 따라 예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장기금리는 미국의 경우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6년 말 대비 소폭 하락했다. 유로지역은 6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빠르게 상승한 뒤 예상보다 완화된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등으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일본은 2016년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글로벌 주가는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크게 상승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지표 호조,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연중 상승세를 보였다. 유로지역은 상반기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통화정책 기조변화 가능성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미 달러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증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유로화에 비해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연중 등락을 반복했으나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성향이 높아지면서 소폭의 약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상반기 중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로 40달러대 초중반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글로벌 수요 증가, 감산합의 재연장,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등으로 배럴당 60달러를 웃도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기타 원자재 가격의 경우 비철금속 가격이 세계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경제 성장

2017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내수와 수출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2016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2.3%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엔 이상 고온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감소, 소득세 환급 지연 등으로 전기 대비(연율 기준) 1.2%에 그쳤으

나 2분기에는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나고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3.1%로 크게 높아졌다. 3분기에는 허리케인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 관련 투자가 부진했으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3.2%를 기록했다. 4분기에 들어서도 세계개편에 대한 기대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호조를 보이며 2.5% 성장률을 이어갔다.

유로지역 경제는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내수 호조,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2016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2.3%를 나타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엔 가계소비 증가, 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를 기록했으며, 2분기에도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0.7%로 회복세를 보였다. 3분기에는 실업률이 최저 수준, 경기체감지수가 최고 수준을 보이며 0.7% 성장했다. 4분기에도 수출과 경제심리 호조로 0.6%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수출 증가와 내수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2016년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스는 국가채무위기가 점차 해소되면서 2016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1.4%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2016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1.7%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민간소비, 주택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0.5%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기업의 인력부족 대응, 대규모 공공투자의 본격 집행 등의 영향으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심리도 개선되면서 민간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0.6% 성장했다. 3분기에는 민간소비는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설비투자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0.6%의 성장세를 지속했다. 4분기에도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기업수익 개선이 설비투자로 이어지면서 0.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는 대외수요 회복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6.9%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했다. 분기별로는 디플레이션 압력 해소와 기업수익성 개선, 대외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성장률이 2016년 4분기보다 소폭 올라간 6.9%를 기록했다. 2분기에도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1분기와 같은 6.9%를 기록했다. 3분기에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

세계 경제 성장률¹⁾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3.4	3.2	3.7
선진국	2.2	1.7	2.3
미국	2.9	1.5	2.3
유로지역	2.1	1.8	2.3
일본	1.4	0.9	1.7
신흥시장국	4.3	4.4	4.7
중국	6.9	6.7	6.9
브라질	-3.5	-3.5	1.0
러시아	-2.5	-0.2	1.5
인도	8.2	7.1	6.6
아세안 5개국 ²⁾	4.9	5.0	5.4

주: 1) IMF 기준, 단 개별 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각 발표치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자료: IMF, 각각 발표치

지했으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다소 둔화한 6.8%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산업생산이 수출 호조로 꾸준히 증가하고 기업 실적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3분기와 같은 6.8%를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을 보면, 브라질은 2016년의 -3.5%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1.0%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러시아도 2016년의 -0.2%에서 2017년 1.5%의 성장률을 보였다. 인도는 신규 상품·서비스세제(GST) 도입에 따라 2분기와 3분기 중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기업 심리가 위축돼 2017년 경제 성장률이 2016년의 7.1%보다 낮은 6.6%에 그쳤다.

아세안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모든 국가의 성장세가 확대되며 2016년 성장률 5.0%보다 높은 5.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수출과 인프라 투자 호조 등으로 5.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세 지속,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등으로 성장률이 2016년의 6.2%보다 오른 6.8%를 기록했다. 필리핀은 IT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인프라 투자, 민간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원자재 가격 상승, IT제품 수출의 큰 폭 증가, 2016년 중 기상 악화로 감소한 농업생산의 반등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2016년의 4.2%보다 높은 5.9%를 기록했다. 태국 경제는 관광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회복돼 2016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 고용

2017년 미국의 고용여건은 개선 추세가 지속됐다.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2017년 월평균 18만 명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고, 고용률(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도 60.1%로 2016년의 59.7%보다 상승했다. 실업률은 2016년보다 0.5%포인트 낮은 4.4%로 자연실업률(CBO 기준 4.7%) 수준을 밑돌았다. 다만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5%로 2016년의 2.6%에 이어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유로지역도 고용여건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실업률은 하락세가 지속돼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9.1%를 기록했으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가별 실업률은 독일이 유로지역 평균 9.1%보다 낮은 3.8%를 보인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9.4%, 11.3%로 유로지역 평균보다 높았다.

일본의 고용여건도 개선됐다. 2017년 실업률은 2.8% 수준으로 2016년의 3.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구직자 1인당 구인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2017년에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6년의 1.36배보다 높은 1.5배를 기록했다. 다만 명목임금은 0.4% 상승하는 데 그치고 실질임금은 0.2% 하락하는 등 임금회복은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다.

신흥국 고용여건도 대체로 개선됐다. 중국은 안정적 성장세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러시아도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2016년의 5.5%보다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다만 브라질은 실업률이 2016년의 11.3%에서 12.8%로 높아졌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 국	6.2	5.3	4.9	4.4
유로지역	11.6	10.9	10.0	9.1
일 본	3.6	3.4	3.1	2.8
중 국	4.1	4.1	4.0	3.9

자료 : 미국 노동부, 일본 총무성, EU 통계청,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 물가

2017년 미국의 소비자물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각각 2.1%, 1.7%로 2016년의 1.3%, 1.2%보다 올랐다. 반면 근원소비자물가(에너지, 식료품 제외)와 근원개인소비지출물가 상승률은 각각 1.8%, 1.5%로 2016년의 2.2%, 1.8%보다 낮아졌다.

유로지역의 2017년 소비자물가는 1분기 초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ECB 물가목표 2%에 근접한 1.8%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5월 이후 1%대 중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여가, 교통 등 서비스 가격의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20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1.0%를 기록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임금과 가격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0.5% 오르는 데 머물렀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2016년 동기 대비)은 연초부터 오름세가 확대돼 12월에 0.9%를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0.1% 하락했다. 일본은행의 2017년도 물가안정 목표치는 2%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연간 목표치 3%를 밑돌면서 2016년도의 2.0%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했다. 항목별로는 의료·보건용품이 6.1%, 주거가 2.6%로 높았던 반면 식품·담배는 -0.3%로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생활용품 및 서비스는 1.1%, 의복은 1.3%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특히 브라질은 농산물 풍작으로 식음료 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1998년 이래 최저 수준인 3.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7년 6월에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019년 4.25%, 2020년 4.0%로 하향 조정했다.

동남아시아의 소비자물가는 2016년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으나 대체로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모두 2016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았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 국	1.6	0.1	1.3	2.1
일 본	2.7	0.8	-0.1	0.5
유로지역	0.4	0.0	0.2	1.5
중 국	2.0	1.4	2.0	1.6

자료 : 미국 노동부, 일본 총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 세계교역 및 경상수지

세계교역량(물량 기준) 신장률은 신흥국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선진국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6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4.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수출에서 글로벌 수요 확대에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도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중 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016년과 같은 -0.2% 포인트를 기록했다. 유로지역은 수출이 2016년 대비 4.9% 증가했고 수입은 4.4% 늘었다. 일본은 수출이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등의 호조로 2016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수입은 원유, 석탄 등이 크게 늘어 14.1% 늘었다. 중국은 수출이 2조2천663억 달러로 대외수요 개선 등에 힘입어 2016년 대비 7.9% 증가했다. 수입은 1조8천419억 달러로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며 2016년 대비 15.9% 늘었다.

경상수지는 미국을 제외한 다수의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4천662억 달러로 2016년 4천517억 달러 대비 증가했다. 유로지역의 경상수지는 3천917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며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를 중심으로 2016년 대비 흑자 규모가 커졌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는 흑자폭이 2016년 대비 44억 유로, 프랑스는 적자폭이 76억 유로 각각 증가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서비스수

지 및 소득수지 증가에 힘입어 흑자 규모가 2016년의 20조3천421억 엔보다 늘어난 21조8천742억 엔을 기록했다. 중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폭이 2016년 대비 감소했다.

■ 국제금리 및 추가, 환율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시리아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브렉시트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의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면서 2016년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ECB는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나타낸 반면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는 지속됐다.

주요국의 단기금리(국채 3개월물 기준)는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에 따라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미국의 단기금리는 연준의 세 차례(2017년 3월, 6월, 12월)에 걸친 금리인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16년 말 대비 0.8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본과 유로지역의 단기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상승에 따른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과 ECB의 마이너스금리 정책 유지로 각각 0.26%포인트, 0.12%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기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연중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말 대비 0.03%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연초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어 상승하다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발사(4월),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조사 개시(5월)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6월 이후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강경 발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12월 들어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미 세제개편안 의회 통과(12월 20일)에 따른 추가 국채발행 및 경기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며 상승했다.

반면 유로지역의 장기금리는 상반기 중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유로지역 경제지표 호조, 6월 유럽중앙은행(ECB) 드라기 총재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계교역신장률(%) ¹⁾	3.8	2.8	2.5	4.7
선진국수입물량증가율(%) ²⁾	3.8	4.6	2.7	4.0
신흥국수입물량증가율(%) ²⁾	4.3	-0.9	2.0	4.4
경 상 수 지				
선진국(10억 달러) ³⁾	252	325	361	391
신흥국(10억 달러) ³⁾	168	-51	-96	-92
미국(10억 달러)	-374	-435	-452	-466
일본(100억 엔)	392	1,624	2,034	2,187
유로지역(10억 유로)	247	330	368	392
중국(10억 달러) ³⁾	236	304	196	163

주 : 1) IMF 발표치(2014~2015년은 2017년 10월, 2016~2017년은 2018년 1월 기준)
2) IMF 발표치(2017년 10월)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국 발표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단기	미국 ²⁾	0.16	0.20	0.26	0.27	0.50	0.75	1.01	1.04	1.38
	일본 ²⁾	-0.04	-0.09	-0.28	-0.38	-0.42	-0.20	-0.09	-0.22	-0.16
	유로지역 ²⁾	-0.45	-0.42	-0.57	-0.69	-0.90	-0.57	-0.60	-0.59	-0.78
	유로달러 ³⁾	0.61	0.63	0.65	0.85	1.00	1.15	1.30	1.33	1.69
	유로엔 ⁴⁾	0.08	0.00	-0.02	-0.03	-0.05	0.03	0.00	-0.05	-0.02
장기	미국 ⁵⁾	2.27	1.77	1.47	1.59	2.44	2.39	2.30	2.33	2.41
	일본 ⁵⁾	0.27	-0.03	-0.22	-0.09	0.05	0.07	0.09	0.07	0.05
	유로지역 ⁵⁾	0.63	0.15	-0.13	-0.12	0.21	0.33	0.47	0.46	0.42
회사채 스프레드 ⁶⁾	315.1	314.1	298.0	271.6	231.5	231.3	212.6	204.6	183.5	

주 : 1) 1개월 기준 2) 3개월 만기 재정증권 수익률 기준 3) 3개월 만기 달러화 LIBOR 기준 4) 3개월 만기 엔화 LIBOR 기준 5) 10년 만기 국채 기준 6) 미국 10년 만기 회사채(Baa) 기준
자료 : 블룸버그, J.P. 모건

시사 발언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이후 ECB 통화정책회의의 양적완화 관련 결과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일본의 장기금리는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했으나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 유지 등으로 2016년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회사채 스프레드(Baa 기준)는 미국 기업 실적이 양호한 개선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통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2016년 말 대비 상당 폭 하락(231.5→183.5)했다.

글로벌 주가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힘입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크게 상승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경제지표 호조,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의 영향으로 연중 상승세를 보였다. 유로지역은 상반기엔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미국 주가(다우존스지수 기준)는 경제지표 호조, 기업실적 개선,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통과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 등으로 연중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16년 말 대비 25.1% 상승했다. 일본 주가(닛케이지수 기준)도 기업 업황 및 수출 호조,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큰 폭(19.1%)으로 올랐다. 다만 유로지역 주가(유로스톡스지수 기준)는 극우성향 정당 및 후보의 정권 획득 실패에 따른 반(反)EU 정서 확산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ECB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브렉시트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5월 이후 하락했다.

이후 경제회복세 확대,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 유로화 강세,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의 영향으로 등락하다 2016년 말 대비 6.9% 상승했다. 신흥국 주가(신흥국 MSCI 주가지수 기준)는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착륙 우려 완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호조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16년 말 대비 34.3% 올랐다.

미 달러화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신흥국 경기 개선 등으로 주요국과 신흥국 통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2017년 상반기 중 유럽 주요국 선거 이후 유로지역의 결속력 약화 우려 완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10월 들어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 예상보다 더딘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유로지역 경제지표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는 2016년 말에 비해 12.4% 절하됐다. 엔화에 대해서는 연중 등락을 반복했으나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성향 강화 등으로 소폭의 약세를 나타냈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 차별화가 계속됐다. 그러나 시리아(4월)와 북한(8월)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엔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2016년 말 대비 3.8% 절상됐다. 신흥국 통화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호조 및 자원수출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미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17년 말 배럴당 63.8달러로 2016년 말 대비 18.1% 상승했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 상승 요인과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 등 하락 요인이 존재하면서 2017년 초반 5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던 유가는 5월 말부터 미국과 감산 면제국인 리비아, 나이지리아의 원유 증산 영향으로 40달러대 초중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글로벌 수요 증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10월께 5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후 이라크, 이란, 사우디 등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고조, 감산 기간 재연장, 북해지역과 리비아 송유관 가동중단 등의 영향으로 60달러를 웃돌았다. OPEC(석유수출기구)는 2017년 11월 정기총회에서 감산합의 기간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OPEC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OPEC 국가는 2016년 말에 2017년 상반기 중 원유생산을 하루 평균 18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타 원자재 가격의 경우 곡물 가격이 2016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철금속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곡물 가격(S&P GSCI 농산물지수 기준)은 일부 지역의 기상여건 악화에도 주요 생산지에서 생산 호조가 지속되면서 2016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연중으로는 등락을 거듭했다.

1~2월 중에는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하다 3월 이후 남미와 호주에서 대두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5~6월 중에는 미국의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소맥 및 옥수수 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차 하락했다. 곡물별로는 옥수수와 대두가격이 2016년 말 대비 각각 0.4%, 4.5% 하락했으며 소맥가격은 4.7% 상승했다.

주가 및 환율¹⁾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6월	9월	12월	
주 가	다우존스	17,425	19,763	20,663	21,350	22,405	24,719
	나스닥	5,007	5,383	5,912	6,140	6,496	6,903
	유로스톡스	3,268	3,291	3,501	3,442	3,595	3,504
	닛케이	19,034	19,114	18,909	20,033	20,356	22,765
환 율	엔/달러	120.40	117.08	111.78	112.05	112.43	112.65
	달러/유로	1.0860	1.0513	1.0649	1.1423	1.1812	1.1996
	달러/파운드	1.4738	1.2336	1.2545	1.3025	1.3396	1.3512

주: 1) 기말 기준. 엔화 환율은 도쿄시장, 나머지 통화는 로이터 고시 가격 기준
자료: 블룸버그, 로이터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¹⁾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6월	9월	12월
두바이유가격(달러/배럴)	32.1	54.0	51.0	46.6	55.8	63.8
동(달러/톤)	4,705.8	5,523.0	5,816.0	5,927.0	6,432.3	7,207.0
알루미늄(달러/톤)	1,500.3	1,704.0	1,952.3	1,913.5	2,080.0	2,256.0
소맥 ²⁾ (센트/부셸)	470.0	408.0	426.5	511.0	448.3	427.0
옥수수 ²⁾ (센트/부셸)	358.8	352.0	364.3	370.5	355.3	350.8
금(달러/온스)	1,061.4	1,152.3	1,249.4	1,241.6	1,280.2	1,303.1

주: 1) 기말 기준. 환물가격 2) 최근 월 선물 가격
자료: 블룸버그

비철금속 가격(LMEX비철금속지수 기준)은 2016년 말 대비 17.8% 올랐다. 연초에 미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에 대한 기대감, 2~3월 중 칠레 광산 파업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중국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6월부터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중국 내 알루미늄 생산 축소,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급등세를 보였다. 중국 정부가 2분기에 320만 규모의 알루미늄 불법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동절기 알루미늄 생산을 제한하면서 중국 내 알루미늄 생산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2016년 말 대비 구리 가격은 30.5%, 알루미늄 가격은 32.4%, 니켈 가격은 27.5% 상승했다.

지역별 경제

■ 미국 경제

2017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보다 0.8%포인트 높은 2.3%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기업 재고 조정, 1~2월의 이상 고온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감소, 자동차 판매 부진 등으로 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기준)이 1.2%에 그쳤다. 2분기에는 1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2015년 1분기의 3.2% 이후 가장 높은 3.1%를 기록했다. 3분기에는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 등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건설 관련 투자도 부진했으나 설비투자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GDP 증가율은 3.2%에 달했

다. 4분기 들어서는 3분기에 위축됐던 소비지출이 자동차 판매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주택투자도 확대됐으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기보다 둔화한 2.5%를 기록했다.

GDP 지출부문 별로는 개인소비지출이 고용 호조에 따라 산가격 상승 등에 힘입은 소비심리 개선으로 2016년과 같은 2.7%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간투자는 영업이익의 확대 등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등으로 투자심리도 호전되면서 2016년의 -1.6%에서 3.2% 상승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수출도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수입이 4분기 중 14%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중 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016년과 같은 -0.2%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지수는 높은 가동률을 바탕으로 2016년 대비 1.3% 상승했다. 제조업 공급관리자협회(ISM) 지수는 기준치(50)를 상회하는 57.4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체감심리가 2016년의 51.4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착공이 늘어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신축주택 가격 상승률은 4.3%에서 4.7%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은 5.5%에서 6.0%로 확대됐다. 주택 착공 호수는 2016년의 117만7천 호 대비 2.6% 늘어난 120만8천 호를 기록했다. 다만 주택 판매의 경우 신축주택은 11.6%→10.1%, 기존주택은 4.1%→1.7%로 모두 2016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용여건도 개선 추세가 지속됐다.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월평균 18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도 60.1%로 2016년의 59.7%보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 대비, %)

구 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제조업 생산 ¹⁾	0.0	1.3	0.6	0.6	-0.5	1.5	1.3	0.2	0.1
제조업 가동률	75.1	75.7	75.4	75.7	75.2	76.4	76.2	76.3	76.3
제조업 ISM지수	51.4	57.4	56.6	55.8	58.7	58.7	58.5	58.2	59.3
개인소비지출(실질) ²⁾	2.7	2.7	0.5	0.8	0.5	0.9	0.2	0.5	0.2
소비자신뢰지수 ³⁾	99.8	120.5	117.5	118.1	120.3	126.0	126.2	128.6	123.1
소매판매	3.2	4.2	1.4	0.3	1.1	2.5	0.7	0.8	-0.1
(자동차 제외)	3.0	4.2	1.8	0.2	1.1	2.3	0.5	1.2	-0.0
비방위자본재수주 ⁴⁾	-4.6	5.3	1.7	0.8	3.2	2.7	0.8	0.1	-0.5
주택판매 ⁴⁾ (신축)	11.6	10.1	8.7	-2.0	-2.9	12.4	-3.6	15.4	-8.2
" (기존)	4.1	1.7	1.0	-1.0	-2.6	3.5	2.4	4.0	-2.8
주택가격 ⁴⁾ (신축)	4.3	4.7	4.2	2.7	6.3	5.8	5.5	8.9	3.0
" (기존)	5.5	6.0	6.9	6.0	5.6	4.8	5.1	5.5	5.7
주택착공호수 ⁵⁾	117.7	120.8	123.8	116.7	117.2	125.6	126.1	129.9	120.7
실업률(%)	4.9	4.4	4.7	4.3	4.3	4.1	4.1	4.1	4.1
비농업부문취업자 수 ⁶⁾	2,530	2,275	594	473	553	556	271	216	175
근원PCE 가격지수 ⁷⁾	1.8	1.5	1.8	1.5	1.4	1.5	1.5	1.5	1.5
소비자물가 ⁷⁾	1.3	2.1	2.5	1.9	2.0	2.1	2.0	2.2	2.1
	(2.2)	(1.8)	(2.2)	(1.8)	(1.7)	(1.8)	(1.8)	(1.7)	(1.8)
생산자물가 ⁷⁾	0.4	2.3	2.0	2.2	2.4	2.8	2.8	3.1	2.6

주 : 1) 분기는 연율 2) Conference Board(1985=100) 3) 항공기 제외 4) 2016년 동기 대비 5) 연간 환산치, 만호 6) 증가분, 천명 7) 2016년 동기 대비, () 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 : 미국 상무부, 노동부, 연준, Conference Board, 부동산중개인협회

미국 GDP 성장률

(전기 대비 연율, %, %p)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¹⁾	2.9	1.5	2.3	1.2 (2.0)	3.1 (2.2)	3.2 (2.3)	2.5 (2.5)
개인소비지출	3.6	2.7	2.7	1.9	3.3	2.2	3.8
민간총투자 (고정투자)	5.2	-1.6	3.2	-1.2	3.9	7.3	3.5
〈비주거용투자〉 ²⁾	3.9	0.7	4.0	8.1	3.2	2.4	8.1
- 구조물	2.3	-0.6	4.7	7.2	6.7	4.7	6.6
- 설비	-1.8	-4.1	5.4	14.8	7.0	-7.0	2.5
- 지식생산물	3.5	-3.4	4.8	4.4	8.8	10.8	11.8
〈주택투자〉	3.8	6.3	4.0	5.7	3.7	5.2	2.4
(재고증감) ³⁾	10.2	5.5	1.8	11.1	-7.3	-4.7	13.0
순수출 ³⁾	0.2	-0.4	-0.1	-1.5	0.1	0.8	-0.7
(수출)	-0.7	-0.2	-0.2	0.2	0.2	0.4	-1.1
(수입)	0.4	-0.3	3.4	7.3	3.5	2.1	7.1
정부지출	5.0	1.3	3.9	4.3	1.5	-0.7	14.0
	1.4	0.8	0.1	-0.6	-0.2	0.7	2.9

주: 1) () 내는 2016년 동기 대비 2) 구조물, 설비 및 지식생산물 투자 포함
3) 성장기여도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상승했다. 실업률은 2016년보다 0.5%포인트 낮은 4.4%를 보이며 자연실업률(CBO 기준 4.7%) 수준을 밑돌았다.

소비자물가, 개인소비지출(PCI)물가는 유가, 식료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16년의 소비자물가 1.3%, 개인소비지출물가 1.2%보다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며 각각 2.1%, 1.7%를 기록했다. 반면 근원소비자물가(에너지, 식료품 제외)와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 상승률은 각각 1.8%, 1.5%로 2016년의 2.2%, 1.8%보다 낮아졌다.

대외거래(국제수지 기준)는 양호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4천662억 달러로 2016년의 4천517억 달러보다 증가했다. 3분기에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무역거래가 줄면서 적자 규모가 축소됐으나, 4분기에는 수입이 다시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늘었다.

정부재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수입 3조3천149억 달러, 재정지출 3조9천806억 달러로 6천6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6년 적자 5천856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3.5%를 기록하며 2016년의 3.2%보다 상승했다.

한편 미 연준은 양호한 경제 여건 및 인플레이션 경로 전망에 근거해 정책금리를 3월, 6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0.50~0.7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 유로지역 경제

2017년 유로지역 경제는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의 마무리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내수 호조,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여건 및 경제심리가 개선되면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증가하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전기 대비 0.5%를 웃도는 성장세를 지속하며 연간 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8년에도 2% 내외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지역 경제성장률¹⁾

(전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2.1	1.8	2.3	0.6 (2.1)	0.7 (2.4)	0.7 (2.7)	0.6 (2.7)
민간소비	1.8	2.0	1.6	0.5	0.5	0.3	0.2
정부소비	1.3	1.8	1.2	0.2	0.4	0.4	0.3
고정투자	3.3	4.6	3.5	0.2	1.7	-0.2	0.9
수출	6.4	3.4	4.9	1.3	1.2	1.6	1.9
수입	6.7	4.8	4.4	0.2	1.8	0.6	1.1

주: 1) 분기는 계절변동조정 후, () 내는 2016년 동기 대비
자료: EU 통계청

국가별로는 독일이 민간소비, 고정투자 등 내수 호조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2016년 수준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스는 국가채무위기의 여파가 점차 해소되면서 2016년 -0.2% 마이너스 성장에서 1.4%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유로지역 주요국 경제성장률¹⁾

(전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독일 [29.2]	1.7	1.9	2.2	0.9 (2.1)	0.6 (2.3)	0.7 (2.7)	0.6 (2.9)
프랑스 [20.5]	1.1	1.2	1.8	0.7 (1.2)	0.6 (1.9)	0.5 (2.3)	0.6 (2.5)
이탈리아 [15.4]	1.0	0.9	1.5	0.5 (1.3)	0.4 (1.6)	0.4 (1.7)	0.3 (1.6)

주: 1) 분기는 계절변동조정 후, () 내는 2016년 동기 대비
2) [] 내는 유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년 중 명목GDP 기준)
자료: EU 통계청

2017년 중 유로지역 경상수지는 3천917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며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2106년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가 2016년에 비해 47억 유로 증가했으며, 프랑스는 적자폭이 76억 유로 늘었다.

유로지역 주요국 경상수지¹⁾

(억 유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유로 지역	경상수지	3,302	3,676	3,917	911	809	1,242	956
	상품수지	3,555	3,730	3,486	792	826	986	881
	서비스수지	622	390	809	177	175	261	196
	본원 소득수지	489	953	1,125	237	247	387	255
	이전 소득수지	-1,365	-1,397	-1,503	-295	-438	-393	-377
독일	경상수지	2,714	2,688	2,627	680	551	642	754
프랑스	경상수지	-96	-190	-266	-225	-22	-5	-14
이탈리아	경상수지	256	456	503	58	107	164	173

주: 1) 유로지역은 계절변동조정,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원계열
자료: 유럽 중앙은행, 독일 중앙은행, 프랑스 통계청, 이탈리아 중앙은행

하락세가 지속된 실업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9.1%를 기록했다. 국가별 실업률은 독일이 유로지역 평균 9.1%보다 크게 낮은 3.8%를 보인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9.4%, 11.3%로 유로지역 평균을 웃돌았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유로 지역	실업률(%)	10.9	10.0	9.1	9.5	9.1	9.0	8.7
	실업자 수 (만 명)	1,747	1,625	1,477	1,538	1,486	1,460	1,424
독일	실업률(%)	4.6	4.1	3.8	3.9	3.8	3.7	3.6
프랑스	실업률(%)	10.4	10.1	9.4	9.6	9.5	9.5	9.1
이탈리아	실업률(%)	11.9	11.7	11.3	11.6	11.2	11.2	11.0

주: 1) 2017년 연간과 4분기는 월별 자료의 평균
자료: EU 통계청

2017년 중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HICP: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1분기 초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ECB의 물가 목표인 2%에 가까운 1.8%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5월 이후 1%대 중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여가, 교통 등 서비스 가격의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20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1.0%를 기록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유로지역 ¹⁾	0.0	0.2	1.5	1.8	1.5	1.4	1.4
근원소비자물가 ¹⁾	0.8	0.9	1.0	0.8	1.1	1.2	0.9
독일	0.3	0.5	1.8	1.9	1.7	1.7	1.7
프랑스	0.0	0.2	1.0	1.2	0.9	0.9	1.1

주: 1) HICP 기준
자료: EU 통계청, 독일 통계청, 프랑스 통계청

2017년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심리지표는 2016년에 이어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4분기에는 개선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체감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가 2016년 대비 6.4포인트 상승한 110.7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았으며 제조업 PMI도 57.4로 기준치(50)를 웃돌았다. 국가별로는 독일의 Ifo지수가 114.7로 2016년 대비 6.4포인트 상승했으며 프랑스의 INSEE지수도 6포인트 상승한 109를 기록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유로 지역	경기체감지수	103.6	104.3	110.7	107.5	109.5	111.5	114.3
	제조업PMI	52.2	52.5	57.4	55.6	57	57.4	59.7
독일	Ifo지수	108.1	108.3	114.7	111	114.5	115.9	117.3
프랑스	INSEE지수	102	103	109	106	109	110	112

자료: EU 집행위, Markit, 독일 Ifo, 프랑스 통계청

■ 일본 경제

2017년 일본경제는 세계경제의 개선흐름 속에서 투자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GDP 증가율 1.7%를 기록하며 2016년의 0.9%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민간소비 개선, 주택투자 확대 등으로 전기 대비 0.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소비심리 개선으로 민간소비가 확대된 가운데 대규모 공공투자의 본격 집행 등으로 성장률이 0.6%로 소폭 올랐다. 3분기 들어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소폭 감소했으나 설비투자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0.6%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4분기에는 주택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다시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나타내며 0.4% 성장해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고용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016년의 0.1%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민간투자 중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성 증가, 투자심리 개선, 인력부족에 대응한 자동화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16년의 0.6%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3.0%를 기록했다. 주택투자는 저금리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5.6%에 비해 둔화한 2.6%를 기록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¹⁾	0.4	1.4	0.9	0.3 (1.5)	1.7	0.5 (1.4)	0.6 (1.5)	0.6 (1.9)	0.4 (2.0)
민간소비	-0.9	0.0	0.1	0.0	1.1	0.3	0.9	-0.6	0.5
주택투자	-4.3	-1.0	5.6	0.8	2.6	1.2	0.9	-1.7	-2.6
설비투자	5.4	3.4	0.6	1.5	3.0	0.2	1.2	1.0	1.0
공공투자	0.7	-1.7	-0.1	-1.9	1.2	-0.2	4.8	-2.6	-0.2
수출	9.3	2.9	1.3	2.7	6.8	2.0	0.0	2.1	2.4
수입	8.3	0.8	-1.9	0.6	3.6	1.7	1.9	-1.2	2.9

주: () 내는 2016년 동기 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2017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증가 등에 힘입어 흑자 규모가 2016년의 20조3천421억 엔보다 증가한 21조8천742억 엔을 기록했다.

수출(통관기준)은 자동차 4.3%, 반도체장비 31.7% 등의 호조로 2016년 대비 11.8%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미국 6.9%, 중국 20.5%, ASEAN 국가 14.4% 등으로 큰 폭 증가했다.

수입(통관기준)은 원유와 석탄이 각각 29.3%, 54.4% 늘어 2016년 대비 14.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11.5%, 26.8% 증가했고, 미국, EU 국가들로부터는 각각 10.5%, 7.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통관기준)는 2조9천72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6년의 3조9천938억 엔에 이어 2년 연속 흑자였으나 그 폭은 감소했다.

광공업생산은 정보통신부문의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일반기계 등의 호조에 힘입어 2015년 -1.2%와 2016년 -0.1%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4.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상수지(십억엔)	3,922	16,235	20,342	21,874
무역수지(십억엔) ¹⁾	-12,816	-2,792	3,994	2,907
수출(십억엔) ²⁾	73,093	75,614	70,036	78,286
수입(십억엔) ²⁾	85,909	78,406	66,042	75,379
광공업생산(2016년 대비, %)	2.1	-1.2	-0.1	4.5
실업률(%)	3.6	3.4	3.1	2.8
유효구인배율(배)	1.09	1.20	1.36	1.50
명목임금(2016년 대비, %)	0.4	0.1	0.5	0.4
실질임금(2016년 대비, %)	-2.8	-0.9	0.7	-0.2
소비자물가상승률(%)	2.7	0.8	-0.1	0.5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³⁾ (%)	1.8	1.0	0.3	-0.1
기업물가상승률(%)	3.2	-2.3	-3.5	2.3
닛케이주가 ⁴⁾ (엔)	17,451	19,034	19,114	22,765
엔/달러 환율 ⁵⁾	119.44	120.39	116.96	112.69

주: 1) 통관 기준 2) 기말 기준 3)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고용여건은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2017년 중 평균 실업률은 2.8%로 2016년의 3.1%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구직자 1인당 구인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이 2017년에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6년의 1.36배보다 높은 1.5배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12월 중에는 유효구인배율이 1974년 1월의 1.64배 이후 최고 수준인 1.59배까지 상승했다. 명목임금은 2016년 0.5%와 비슷한 0.4% 상승하는 데 그치고 실질임금은 0.2% 하락하는 등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회복은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경기호조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임금과 가격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0.5%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한 가운데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2016년 동기 대비)은 연초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12월에 0.9%를 기록했다.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0.1% 하락했다.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주가는 금융완화기조 지속, 기업실적 개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 등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연중으로는 대체로 강세를 보이며 2016년 말의 19,114 대비 19.1% 상승한 22,765로 마감했다.

엔/달러 환율은 2017년 말 112.69로 2016년 말의 116.96 대비 3.7% 절상됐다. 엔/달러 환율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4월 중 100엔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이후 프랑스 대선(5월 7일), 북한 6차 핵실험(9월 3일) 등 대외정세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였으며 4분기에는 미·일 통화정책 비동조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110엔대 초반까지 올랐다.

일본 정부는 6월 9일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17」을 발표하면서 「인재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핵심 정책으

로 설정하고 유아교육 무상화, 보육시설 대기 아동 해소, 고등교육 수업료 경감 등을 주요 정책 내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재정 건전화 목표(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감축'이라는 새로운 재정 건전화 지표를 추가했다. 이는 기존 재정 건전화 목표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

10월 22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한 후 11월 1일 제4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추진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12월 8일 일본 정부는 인재육성 혁명, 생산성 혁명을 양대 축으로 하는 2조 엔 규모의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하고 기존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를 여전히 밑돌았다. 일본은행은 물가안정 목표 달성 시기를 종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여섯 번째 연기했다.

중국 경제

2017년 중국 경제는 6.9%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6년의 6.7%를 웃도는 결과였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이 3.9%로 2016년의 3.3% 대비 증가했으며 3차 산업 또한 2016년의 7.7%에서 8.0%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2차 산업은 6.1%로 2016년의 6.3% 대비 다소 둔화했다.

고정투자는 2016년의 8.1%에 비해 둔화하면서 7.2%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부와 동부가 각각 8.5%, 8.3%인데 비해 중부는 6.9%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부문별로는 민간투자 증가율이 2016년 3.2%에서 6.0%로 개선된 반면, 공공투자는 중국 정부의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 등으로 2016년 18.7%에서 10.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생산은 연간 6.6% 증가하면서 2016년의 6.0%에 이어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영기업이 2016년 -1.3%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0.6%로 소폭 회복됐다.

소매판매는 가계소득 증가와 양호한 고용 등을 바탕으로 2016년의 10.4%에 이어 2017년에도 1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여건 안정이 소비증가를 견인했다.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는 2016년 1천314만 명에서 1천35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2016년과 동일한 4.0%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 소매판매는 2016년 25.6% 증가에 이어 2017년에도 28.0%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월 109.2에서 12월에 122.6까지 상승했다.

수출은 연간 2조2천633억 달러로 대외수요 개선 등에 힘입어 2016년 대비 7.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11.3%, EU 9.1%, BRICs 17.9%를 기록했다. 수입은 연간 1조8천419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5.9% 증가하면서 2015~2016년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아세안 20.5%, EU 17.7%, 미국 14.8%, 일본 13.9%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 수입증가폭이 확대됐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2016년 동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실질GDP 증가율	6.9	6.7	6.8	6.9	6.9	6.9	6.8	6.8
고정투자 ¹⁾	10.0	8.1	8.1	7.2	9.2	8.6	7.5	7.2
산업생산 ²⁾	6.1	6.0	6.1	6.6	6.8	6.9	6.3	6.2
소매판매 ²⁾	10.7	10.4	10.6	10.2	10.0	10.8	10.3	9.9
수출	-2.9	-7.7	-5.3	7.9	7.2	8.2	6.4	9.7
수입	-14.3	-5.5	2.7	16.0	24.3	14.2	14.7	12.5
무역수지 ³⁾	5,939	5,097	1,309	4,225	604	1,175	1,137	1,309
소비자물가 ²⁾	1.4	2.0	2.2	1.6	1.4	1.4	1.6	1.8
생산자물가 ²⁾	-5.2	-1.3	3.3	6.3	7.4	5.8	6.2	5.9
총통화(M2) ⁴⁾	13.3	11.3	11.3	8.2	10.6	9.4	9.2	8.2

주: 1) 누계 기준, 도시 지역 2) 분기 수치는 해당 월 평균
3) 억 달러 4) 말잔 기준
자료: CEIC,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해관총서, 중국인민은행

무역수지는 2016년 5천97억 달러 대비 감소한 연간 4천2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2천758억 달러, EU 1천272억 달러, 아세안 43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는 각각 748억 달러, 283억 달러 적자였다.

2017년 총통화(M2) 증가율은 8.2%로 연간 목표치인 12%를 밑돌았다. 중국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등 디레버리징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신규대출은 13조5천231억 위안으로 2016년 12조6천459억 위안에 대비 6.9% 증가했다. 사회용자총액은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19조4천443억 위안 늘어나 2016년 17조8천22억 위안 대비 9.2%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연간 목표치 3%를 밑돌면서 2016년의 2.0% 대비 상승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의료·보건용품 6.1%, 주거 2.6%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식품·담배는 -0.3%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생활용품 및 서비스, 의복은 각각 1.1%, 1.3%로 상승률이 낮았다. 생산자물가는 6.3%로 2012~2016년 5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벗어나 플러스로 전환했다.

부동산가격은 전국 상업용 부동산가격 평균 상승률이 5.6%로 2016년의 10.1% 대비 둔화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70대 도시의 신규분양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57개, 하락 7개, 보합 6개를 기록했다.

주가(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17년 말 3,307.2로 2016년 말의 3,103.6 대비 6.6% 상승했다. 주로 무역지표 호조 및 시진핑 2기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이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위안화는 연초 이후 지속된 미 달러화 약세,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 통제 노력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말 미 달러당 6.5120 위안으로 전년 말 6.9495위안 대비 6.7% 절상됐다.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6년의 1천337억 달러 대

비 1.9% 증가한 1천3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6%로 2016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데 반해, 정보통신·컴퓨터서비스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3%를 기록하며 2016년 대비 9.0%포인트 증가했다. 대외직접투자(ODI)는 1천246억 달러로 2016년의 1천812억 달러 대비 31.2%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2017년 말 3조1천399억 달러로 2016년 말의 3조105억 달러 대비 1천294억 달러 증가했다.

■ 중국을 제외한 BRICs

중국을 제외한 BRICs 국가들의 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냈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모두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으며 인도는 2017년 7월 통합부가가치세(GST) 도입 등 세제 개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대의 성장세(2017년 회계연도 기준)를 이어갔다.

경제성장률 (2016년 동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3.5	-3.5	-2.7	-2.5	1.0	0.0	0.4	1.4	2.1
러시아	-2.5	-0.2	-0.4	0.3	1.5	0.5	2.5	1.8	-
인도	8.2	7.1	7.6	6.8	6.6	6.1	5.7	6.5	7.2

주: 1) 인도 연간 GDP 증가율은 회계연도 기준
자료: 브라질 및 인도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이들 국가의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개선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브라질은 대두, 철강 등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러시아는 원유 등 원자재 수출이 크게 늘었다. 인도는 기계류, 석유제품, 보석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 (2016년 동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15.1	-3.1	-2.1	-1.6	17.6	24.4	15.3	15.9	15.9
러시아	-31.3	-17.4	-9.8	1.9	25.3	36.5	23.4	18.8	24.2
인도	-17.0	-1.5	-1.0	6.1	13.6	17.3	10.6	13.5	13.1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브라질 및 인도 상공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농작물 풍작으로 식음료 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1998년 이래 최저 수준인 3.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7년 6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019년 4.25%, 2020년 4.0%로 하향 조정했다.

브라질과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은 연중 수차례의 금리 인하를 통해 연초 각각 13.0%, 10.0% 수준이었던 정책금리를 7.0% 및 7.75%까지 대폭 낮춘 운용했다. 인도 중앙은행 역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8월 한차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6년 동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브라질	9.0	8.7	8.7	7.0	3.4	4.9	3.6	2.6	2.8
러시아	15.6	7.1	6.8	5.8	3.7	4.6	4.2	3.4	2.6
인도	4.9	4.9	5.2	3.7	3.3	3.6	2.2	3.0	4.6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인도 노동부

■ ASEAN 5개국

ASEAN 5개국은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개혁 및 정부지출 증가, 대외신인도 제고(2017년 5월 S&P, 2017년 12월 Fitch가 각각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등으로 2016년의 5.0%와 비슷한 5.1% 성장률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2분기 및 3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5.9%를 기록하며 2016년의 4.2%를 크게 넘어섰다. 필리핀은 수출과 민간소비 개선에 힘입어 6.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태국은 투자와 수출 증가 등으로 2016년의 3.3% 대비 3.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베트남도 외국인 투자 확대, 양호한 국내소비, 수출 확대 등으로 2016년의 6.2%와 비슷한 6.8%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경제성장률 (2016년 동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4.9	5.0	5.0	4.9	5.1	5.0	5.0	5.1	5.2
말레이시아	5.0	4.2	4.3	4.5	5.9	5.6	5.8	6.2	5.9
필리핀	6.1	6.9	7.1	6.6	6.7	6.4	6.7	7.0	6.6
태국	3.0	3.3	3.1	3.0	3.9	3.4	3.9	4.3	4.0
베트남	6.7	6.2	6.6	6.7	6.8	5.2	6.3	7.5	7.7

자료 : 각국 통계청

수출도 모두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2016년 대비 소폭 감소에서 두 자릿수 증가로 전환됐고, 태국과 베트남도 2016년 대비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고무, 팜 오일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율 (2016년 동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14.6	-3.5	-4.9	14.0	16.4	21.1	7.9	24.1	13.4
말레이시아	-15.1	-3.8	-1.0	0.7	15.0	11.2	12.0	17.2	19.4
필리핀	-5.3	-2.4	-1.8	3.6	10.0	16.3	12.7	8.4	4.0
태국	-5.8	0.5	1.0	3.8	9.9	4.9	10.9	12.0	11.7
베트남	7.9	9.0	9.3	14.7	21.6	15.8	22.6	22.3	24.6

자료 : 각국 통계청, 태국 중앙은행

교역여건 개선으로 16.4%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IT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필리핀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 호조 등으로 서비스 수출이 증가했다. 베트남은 전자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2016년 대비 오름세가 확대됐으나 대체로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과 근원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말레이시아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6년의 2.1%보다 확대된 3.8%를 기록했으나 식료품 가격 등 기타부문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았다. 필리핀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승폭이 2016년의 1.8%에 비해 3.2%로 비교적 크게 확대됐으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인 3.0±1.0% 내에서 등락을 보였다. 태국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2016년의 0.2% 대비 0.7%로 소폭 확대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베트남은 정부의 의료서비스와 교육부문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1월 5.2%, 2월 5.0%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분기부터 안정되기 시작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6년 동기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네시아	6.4	3.5	3.0	3.3	3.8	3.6	4.3	3.8	3.5
말레이시아	2.1	2.1	1.3	1.7	3.8	4.3	3.9	3.6	3.5
필리핀	1.4	1.8	2.0	2.5	3.2	3.2	3.1	3.1	3.3
태국	-0.9	0.2	0.3	0.7	0.7	1.3	0.1	0.4	0.9
베트남	0.6	2.7	2.8	4.5	3.5	5.0	3.3	3.1	2.7

자료 : 각국 통계청, 태국 상공부

세계 문화

문학

■ 노벨문학상에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

2017년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63)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그가 "위대한 정서적 힘을 가진 소설들을 통해 세계와 닿아 있다는 우리의 환상 밑의 심연을 드러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라 다니우스 한림원 사무총장은 이시구로의 문학적 스타일에 대해 "일상에 매우 정밀하고 민감하며 때로는 정감있게 접근한다."면서 "그는 매우 자제하고, 잘난 체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다니우스 사무총장은 "그는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가"라면서 "(영국 여류 작가) 제인 오스틴(특히 오스틴의 풍속 희극과 심